

# ‘한 지붕 D-365’...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본격화

‘뉴라이프 추진위’ 화상 회의 개최  
양사, 마케팅 등 담당 임원 교차 선임  
추진위, 조직·업무 규정 통합 박차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 통합이 본격화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통합보험사 출범 ‘D-365일’을 맞아 조용병 회장과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의 양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이프(NewLife) 추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합보험사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각 분야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물리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무·IT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신(新)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에 대비한 통합보험사의 자본, 손익, 지급여력 변동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또 통합보험사의 핵심 인프라인 재무·IT 통합시스템 구축 진도율과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뉴라이프 추진위원회는 인력 교류, 조직개편을 통한 화학적 통합 작업도 본격화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양사의 고객 마케팅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2명을 각각 교차로 선임하고, 부서장급 3명을 포함한 약 40여명 규모의 인원 교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고객 중심 조직체계 ▲디지털변화(DT) 추진동력 강화 관점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신한생명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조직인 ‘고객전략그룹’을 신설했으며, 오렌지라이프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디지털 CX실(Customer Experience)을 신설했다.

앞으로 뉴라이프 추진위원회는 조직 및 업무 규정 통합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 초에는 양사의 조직 전체를 통합 보험사 기준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원펌(One Firm) 구동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 회장은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막판 스피드”라며 “내년 7월 출범하는 뉴라이프가 업계 최고수준의 자본 적정성과 톱 2수준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고 고객 중심 영업 체계를 갖춘 일류(一流)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양사 임원 및 부서장 교류현황〉

(신한금융그룹)

구분	성명	인사고류 前	인사고류 後
신한생명	김태환	DB마케팅그룹장 (부사장보)	오렌지라이프 고객유지트라이브장(부사장)
	원경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오렌지라이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
	허영재	GA사업팀 (팀장)	오렌지라이프 GA채널기획부(부장)
	강대윤	보험금심사팀 (팀장)	오렌지라이프 보험금심사SMC(부장)
	오준석	오렌지라이프 원신한추진팀 파견(부부장)	오렌지라이프 원신한추진팀(부장)
오렌지라이프	이기홍	고객유지트라이브장 (부사장)	신한생명 DB마케팅그룹장(부사장)
	유희창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신한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
	김병환	GA채널기획부 (부장)	신한생명 GA사업팀(팀장)
	노태경	보험금심사SMG (부장)	신한생명 보험금심사팀(팀장)
	조정성	신한생명 글로벌사업팀 파견(차장)	신한생명 글로벌사업팀(팀장)

## 신협중앙회, 취약계층 5만명에 온정 베풀다

3대 사회공헌 운동 통해 서비스 제공  
지난 5월 기준 누적기부금 200억 돌파  
다음세대 위한 ‘어부바 멘토링’ 운영

신협중앙회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 이후 3대 사회공헌 운동을 통해 약 5만 여명 이상의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3대 사회공헌 운동은 사회적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잘살기 위한 경제 운동’,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더불어사는 윤리운동’이다.

1일 신협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누적기부금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60개 창업팀 중 37개소가 법인 설립을 통해 최종 사업화에 성공하여 171명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침체를 겪고 있는 전



신협 임직원들이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시장을 선정하여 시설 개선, 상인 교육, 판로지원 등 맞춤형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주 전통한지 생활화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취약가정에 친환경 한지 벽지 및 한지 장판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등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도 운영한다.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금융·경제를 주제로 멘토링을 제공한다. 4년 동안 2252명의 신협 임직원이 8600여 명의 아동에게 2500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든든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신협

동반자의 역할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어부바하겠다”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신협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67.2%로 감소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67.2%로 지난해 말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사들은 RBC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2조8000억원이 줄었다. 1분기 중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타포괄 손익이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5000억원이 감소했다.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시장위험액은 늘었지만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로 금리위험액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銀, 신임 디지털금융부문장에 이상래

(전 삼성SDS 상무)

NH농협은행은 신임 디지털금융부문장(CDO·부행장)으로 이상래 전 삼성SDS 상무(사진)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선임된 이상래 부행장은 1965년 생으로 대구 영진고와 경북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삼성SDS에 입사해 솔루션컨설팅팀장, 데이터분석사업팀장, 디지털마케팅 팀장 등을 지냈다.

농협은행은 외부 디지털 전문가 영입으로 디지털금융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관련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중용했다”며 “디지털금융 조직을 강화하는 만큼 디지털금융의 티핑 포인트(급변점)를 만들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안상미 기자

## 부서간 협업 강화로 민원 사전 예방

### \* KB국민카드

부서 협업 프로그램 ‘원스톱 솔루션’ 민원해결 주관부서 담당, 상시 가동

KB국민카드가 고객 민원 사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프로그램 ‘원스톱 솔루션(OSS)’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빈번하게 민원이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다.

대표적으로 ▲카드발급, 이용한다 심사 업무 ▲철회향변, 회원보상 등 의제기 업무 ▲연체, 채권 관리 업무 등의 문제를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팀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한다. 소비자보호부와 각 민원 해결을 위한

주관부서 담당자는 상시로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생길 경우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일 “프로그램은 기존 소비자보호와 고객 민원 감축을 위해 펼쳤던 활동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기존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의 시각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IBK기업銀, 필리와 ‘슬기로운 건강생활’

IBK기업은행이 맞춤형양제 정기구독 기업 필리(pilly)와 함께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7월 중 간편결제 카카오페이에 기업은행 계좌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다.

대상고객은 필리 정기구 할인쿠폰을 지급받는다. 건강 설문작성 시 10%, 기업은행 제휴 5%로 최대15% 할인이 적

용된다. 또 ‘IBK D-Day적금’ 가입 시 0.2%포인트(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과 우대금리 쿠폰은 매주 수요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독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개인별 맞춤 영양제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